

# 한국 선종사 뿌리 무상 선사로부터 찾아야

## 특별기고

### 정종종의 조사 선사상 무상 선사를 찾아서 下

#### # 때묻은 목간에 남은 무상의 숨결

문득 보리도량 우측에 묘사제를 보니 한 노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이분이 바로 청덕(淸德) 주지스님이다. 일찍이 20세에 출가해서 20세기 중국의 험난한 세상 고초를 겪어내면서 수행에 힘써오셨다. 낙양 성수사, 평현 용흥사, 용경현 운봉사 주지를 역임하셨고, 이제 이곳 영국사에 오셔서 재건 불사에 힘쓰고 계신다. 두 번의 뇌수술을 겪으시고 지금 가는 귀가 먹으셨지만 86세의 노령임에도 아직 정정하시다. “젊은 스님들은 다 어디 가고 왜 홀로이 젊은이 키시는가?” 여쭙었더니, “아직 승방이 완성되지 않아 모두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신다. 보리도량 뒤쪽 한창 공사중인 건물이 바로 승방이었다.

스님은 한국 불교계가 무상 선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신다. 그토록 높은 법력을 지니시고 선불교 역사에 일대 방점을 찍으신 분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 말에 사뭇 부끄러워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일찍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다 건너 중국으로 와서 그것도 당시엔 오지라 할수 있는 이 머나먼 속도로 들어와서 두타행을 하며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고초를 감수하며 깨달음을 얻으신 분, 그 깨달음으로 널리 중생을 교화하며 선불교의 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을 우리는 이토록 잊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보리도량은 기본 골간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내부 목재 골조는 천 수백여 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온전히 보존되어 왔다. 겉게 때묻은 목재 속에서 무상 스님이 기도 삼매경에 든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 # 달마선의 비조 정종종

무상 선사가 당시 양주 절도사 장구경 경과의 인연으로 성도로 와서 정종사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중생들의 교화에 나서게 되었다. 선사는 입적하기까지 20여년 간 성도에서 정종사를 본원으로 정종종을 일으킨다. 정종종 선법의 핵심은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의 삼구와 열불선으로 대표할 수 있다. <역대법보기>의 기록을 보면 그 사상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김화상(무상)은 매년 12월 정월, 사부대중 백천만인을 위해서 수계설법을 했다. 도량을 엄설하고 높은 단상에 올라 설법할 적엔 먼저 인성열불하여 일성(一聲)의 숨을 전부 다 내쉬게 한 뒤에 목소리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끊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 무억은 계(戒)이며 무념은 정(定)이며 막망은 혜(慧)인 것이다. 이를 일러 계·정·혜 삼구의 말로 총지문(總指門)이다.’”



① 무상선사 법상이 모셔진 대자사 조사당에서 기도하는 스님들.  
② 무상선사를 모신 대자사 조사당.  
③ 영국사 주지 청덕 노스님.  
④ 대자사 조사당에 세워진 무상선사기념비.

## ‘안사의 난’ 때 현종이 내전에 모시고 공양...대자사 주지 맡겨 무상의 제자 마조도일, 한국 구산 선문 형성에 중대한 영향

이 때의 인성열불은 흔히 말하는 소리내어 경을 읽는 열불이 아닌 일종의 화두선이다. 삼구의 의미에 대해서 종필도 주목하여 <원각경대소초>에서 마음에 지난 일들은 추억하지 말고(무억), 또 미래의 노고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며(무념), 항상 지금 지혜와 상응하여 흐리지 않고 틀림없도록 한다(막망)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상 선사 스스로 설하기를 “내가 가르친 삼구는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원법(原法)으로 내 스승 저적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를 가르친 바 없다”고 하였다. 그가 달마 조사 최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두타행을 통해서 독자적인 방편을 체득하고 깨달음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자적인 선법으로 정종종은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당시의 선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무상 스님 선법의 원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티베트의 선불교 도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티베트의 고대 역사서인 <마세전>에 의하면 마하연 이전에 티베트에서 구법 사절단인 썬시 일행이 중국에 파견되었을 때, 무상 선사가 이들을 일컫는 선불교를 가르치고 장래의 법난에 대해서 예언해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세르난이라는 사신이 중국에 구법 사절로 가서 무상 선사에게 가

르침을 받았다고도 한다. 이러한 기록을 따를 때 북중선의 마하연 선사가 라사에 들어가 이른바 ‘라사의 종론’을 행함으로써 최초로 중국 선불교가 전해졌다는 통념이 뒤집히고, 무상 선사가 최초로 티베트에 중국 선불교를 전파한 것이 증명된다. 또한 무상 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신이한 일화가 전해지고, 돈황에서 티베트어로 된 무상 선사 어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상 스님의 법력이 티베트어까지 크게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유서깊은 대자사

안타깝게도 정종사는 이미 소실되고 그 자리에는 학교가 들어서 있다. 현재 성도에 무상 선사가 선법을 펼친 사찰로는 유일하게 대자사가 남아있다. 대자사는 위진 시기에 세워진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일찍이 보장 스님이 인도에서 건너와 이곳에서 금식수행을 하면서 400여년을 살다가 입적하였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대당서역기>의 현장 법사가 젊은 시절 이곳으로 와서 수행하고 비구계를 받은 후 장안으로 올라가 서역길에 올랐다. 송대에는 도봉 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와 차도를 전파한 내력이 있어 일본 불교계에도 인연이 깊다.

안사의 난 때 현종이 성도로 피난을 와서 무상 선

사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공양하였다. 이를 인연으로 대자사를 크게 확장하여 96개의 정원에 1000여 폭의 벽화가 있는 대자원으로 만들고 무상 선사를 주지로 있게 하니, 대자사는 이후 사천 제일의 사원이 되었다. 지금은 미륵전, 관음전, 대웅보전, 장경루를 중심으로 아담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나 최근에 지속적으로 확장 불사를 하고 있다.

관음전에 들어서니 많은 신도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자사 뿐만 아니라 성도에 있는 문수원과 조각사에도 참배를 하였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절을 하고 법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공산당 정권하에 그동안 억압되었던 불교가 이제 다시 중생들의 마음속으로 젖어드는 것을 보고 더없는 반가움을 느꼈다. 특히나 이곳 사천 지역은 예로부터 참선의 기풍이 깊게 배어온 곳이 아니던가. 사천은 불교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그중 하나를 들자면 사천의 동부는 한족 지역으로 선종풍이 만연하고, 북서부는 장족지역으로 티베트의 밀종이 만연했다. 조각사에 가보면 선밀 일체(禪密一體)를 내세워서 전당쪽에는 선종을 모시고 후당쪽에는 밀종을 모시고 있다. 무상 선사의 행적을 생각해 볼 때 대자사에서 티베트 불교와 중국 선종이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도 이해가 간다.

대웅보전 측면에 배치된 조사당에는 무상 선사의 법상이 모셔져 있다. 마침 스님 두분이 선사의 법상 앞에서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1200년 전 선사의 정신이 오늘날 불자의 불심에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는 듯해서 감개가 무량하다. 젊은 스님들이 웅망정진하여 무상 선사의 선심을 되찾고 고스란히 간직하여 불자들을 평상심의 경지로 이끌어 주기를 기원한다.

조사당 맞은편에는 조사정이 보이는데 이곳에 무상선사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 앞쪽은 한자로 새겨 넣었고 뒤쪽은 한글로 새겨 넣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무상선사의 행적과 한국 선종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한중간의 불교협력에 대해서 적혀져 있다. 여기에 특별히 <불교춘추사>의 발행인 최석환 선생이 무상 선사 재조명에 각고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다. 선생의 노고와 의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무상선사가 남긴 화두

앞서 언급했듯이 무상 선사의 정종종이 이후 선종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최근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 선종의 형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남종선과 북종선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분파가 되었는데 여기서 무상 선사가 북종계에 얽혀있다. <역대법보기>에 의하면 보광종의 개창자인 무주는 지선-처적-무상-무주로 이어지는 법계를 이어받았음을 밝히고 있고, <송고승전>에는 정종종(淨衆神會)이 직계제자로 기록되어 있다. 해의사의 신정(神淨)은 자신이 편찬한 <북산록>에서 무상의 제자였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조도일과 규봉종필이 무상 선사의 제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나라 시인 이상은의 사중당비(四證堂碑)나 종필의 <원각경대소초>에 마조도일이 무상 선사의 제자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규봉종필 역시 중국의 학자 호적(湖適)의 연구에 의해 무상 선사의 제자였음이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선종사도 재검토해야 한다. 규봉종필과 마조도일은 한국 선종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마조도일은 신라 구산선문의 7개 종파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만약 마조도일이 무상의 제자라면 한국 선종의 형성의 계보는 무상 선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시 신라 분국에서도 무상 선사의 위상을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승려들이 무상선사의 영정을 찾아 참배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어느덧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오백나한 속에 묻혀 조용히 정화하고 있다가 120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무상 선사는 우리 불교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불교계와 학계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선사의 행적과 사상의 복원에 힘쓰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선종사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선종사에 있어서 무상 선사의 자리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글·사진=오종철 중국통신원 (中 華 通 訊 社 社 長 고고학과 석사과정)

### 한국불교 역사의 천년 고찰 봉원사

## 봉원사 연지원 봉안당이 장묘문화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삼천불전 1,024기 설치신고필증) ※ 연지원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종교단체 봉안당입니다.

#### 화장 후에는 꼭 납골을 해야 합니다

택지면적보다 2배나 큰 묘지면적, 매년 늘어나는 묘지면적은 여의도 13배,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분묘가 40%를 넘는 것이 국내 매장문화의 현실입니다. 또한 분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 들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장묘의식은 매장에 사회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국민의식의 변화에 맞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골시설은 그리 많지 않으며 미흡한 관리체계로 인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봉원사 연지원에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더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교사상과 어우러진 초현대식 시설과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영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봉원사 연지원은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봉원사내 연지원에서 가신님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또한 영가의 극락 왕생과 지손의 발복을 기원하며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은 영혼의 안식처”  
쾌적한 실내환경과 끊이지 않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로 고인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고품격 디자인과 최첨단 안식시설”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편의시설”

—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서울의 중심부 관악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등 어느 곳에서도 빠르고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 훌륭한 디자인과 최첨단 안식시설  
고품격 색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며, 항상 상쾌한 숲 속의 넓은 실내공간은 고인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 영산재(靈山齋) 보존 도량  
봉원사에서는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 영산재 보존회 주최로 세계문화 및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일) 불행(奉行)하고 있으며, 연중 예불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량입니다.

— 현대식 화장 시설  
화장 시설이 현대적이고 쾌적하며 화장비가 저렴하고 화장시간이 짧아 편리합니다.

— 납골시설과 화장 시설  
봉원사에서는 화장과 납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동화 화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벽한 편의시설과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비디오 영상시스템  
우리나라 최초로 고인의 상아생전 모습이나 팔자위를 영상에 담아 화관으로 태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납골육과 육식공간  
가족과 같이 육식을 할 수 있는 육식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식재료로 삼신의 리포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차량과 담소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봉원사 연지원은 이렇게 다룹니다

- 비디오 영상시스템 설치
- 국내최초 엘리베이터 설치
- 완벽한 냉·난방시설 완비
- 사찰입구 마을버스 정류장
- 연꽃의 한마당 · 주차장 완비
- 휴게실, 식당, 전통차집

### 장묘문화의 새 장 봉원사 연지원

www.yungi.co.kr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23번지 전화 02)365-7678~9 / 팩스 02)365-7680

